

전남 소비자물가 7.1% IMF위기 이후 최고...광주 6.3% 급등

■ 호남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전남 1998년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광주 2008년 7월과 같은 상승률 14년만 최고

6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1%를 기록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8.2%)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광주지역 역시 상승률이 6.3%를 보이며 2008년 7월 같은 수준의 상승률 이후 14년만

에 최고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개인서비스도 높은 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9(2020년=100)로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7.1% 각각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11.81(2020=100)로 전월대비 1.0%, 전년동월 대비 8.6% 각각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는 돼지고기가 17.4% 오르고 수입쇠고기가 25.2% 상승하는 등 농축수산물 이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했다. 공업제품도 경유가 51.3% 상승하고 휘발유가 31.6%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11.2% 올랐다.

6월중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8.59(2020년=100)로 전월대비 0.6%, 전년동

월대비 6.3% 각각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11.54(2020=100)로 전월대비 0.8%, 전년동월 대비 8.1% 각각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는 돼지고기가 22% 오르고 수입 쇠고기가 28.7%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이 7.9%나 상승했다. 또 경유가 50.3% 오르고 휘발유가 30.7% 상승하는 등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업제품도 9.2% 상승했다.

김재환기자

“캐스퍼 올해 5만대 생산 목표 달성 무난”

광주GGM, 올 2만2500여 대 돌파...반도체부품 수급난·경기침체 속 순항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난과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5만대 생산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누적 생산 3만 5000 대, 올 2만2500여 대를 돌파했다.

이는 상반기 반도체 관련 부품 수급난과 화물연대 파업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뤄낸 것으로 5만 대 생산이라는 올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반기에 이 같은 실적을 올린 것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상생의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 4월 중국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령 등의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닥치자 현대자동차

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캐나다 등에서 부품 긴급 공수해 오는 등 발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첫 차 출시 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캐스퍼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캐스퍼 밴’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킨 것도 상반기 순항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선 8기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강기정 시장이 4일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찾아 근로자 대표 등과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요구해 온 사회적 임금에 대해 광주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상생 실천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상반기에는 반도체 부품 수급난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나 모든 임직원이 상생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이를 극복해내면서 하반기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가 주거비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올 목표 달성은 물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서 안정하고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폭염 속 무료급식 순서 기다리는 어르신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지부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속도 내나

부지 선정에만 1년6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온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연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북구 삼각동 418 일원 개발제한 구역(4만210㎡) 부지를 해제한 뒤 차량 검사

와 면허시험, 2개의 도로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4180㎡ 규모의 문화공원(어린이교통공원)과 2165㎡ 상당의 완충녹지 신설도 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도로교통공단은 2025년까지 국비 260억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매듭지를 계획이다.

광주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으로, 시험장 신설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1996년 북구 두암동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한

후 광주와 전남 북구권 주민 불편은 30년 가량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정부지를 둘러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하고 토지 매수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돼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지 매입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비는 넘어간 만큼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